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27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배 마친 후 교육관에서 5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내일(26일) 오후 2시에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팔순을 맞으신 김성한 장로님께서 그 동안 쓰신 글을 모아 책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하해주십시오.

때 - 5월 30일(금) 오후 6시

곳 - 청학프라자 5층(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 앞)

다음 주일 오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일본 생명·평화·역사 기행 신청을 6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청년부 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나누지 마시고 기도와 성경읽기로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2)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시되 음식물은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생명의 하나님, 주님 주신 호흡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모내기로 농부들의 손길이 무척 바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논에도 밭 벗고 들어오셔서 구석 구석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참생명의 모를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 귀퉁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미움과 탐욕일랑 뽑아 주십시오.

어느덧 웨슬리 회심기념 2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함으로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뜨거운 영을 허락해 주셔서 참된 회심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겉모습만 그럴싸한 신앙인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김춘려 한완식 임정자 김혜권 안정숙 이봉옥 정완수 김재광 문복순  
최현선 김홍동 최윤희 권미숙 허호범 오정숙 전세종

**월정현금:**

김성자 김중철 고영애 박경원 송임희 윤주원 최윤선 이재구 황선희

**감사현금:**

박옥식 윤정덕 구성실 유혜경 왕성환 강순배 최숙화 백묘현 이봉옥  
최종원 오정숙 전세종 전성오 나오미 선교회 시므온 선교회 무명5

**생일감사현금:** 윤미경 조윤경

**100주년 기념현금 :** 김영한 이희균 문금석 박권동  
(100주년 헌금 누계 : 208,250,000원)

	장혜숙	장혜숙	조순덕	박영희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배부례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이은옥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박애순	진정숙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송의섭	김춘려
	박효선	허정윤	김정애	홍복선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최희정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임수연
	백혜숙	정옥영	김희우	김희우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박옥식
	이영란	박미영	윤정화	야외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임창선

## 갯잎이 변하여 의자 되다

주일예배가 끝난 후 이회섭 권사님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장의자 하나 하려고 몇 날 며칠 정말 열심히 모은 거예요. 갯잎, 호박잎 따가 팔아서 천 원씩 모은 거예요” 하시는 권사님의 얼굴에서는 드디어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보였습니다.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천 원짜리 지폐가 섞여 있는 봉투에는 천 원짜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봉투 안의 돈을 세면서 보니 정말 정성과 기도가 담긴 돈입니다. 목사에게 가져오기 전에 먼저 큰아드님이신 이회열 집사님에게 자랑했더니 “어유, 우리 어머니 장하셔라!” 하면서 좋아하더라는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80세가 되실 권사님이 장의자 값 30만 원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며칠 전 건축헌금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연세 80 안팎의 권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게다가 의자헌금 30만 원씩 바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 많은 장로님네 막국수집 앞에서 갯잎이 며 호박잎 같은 것을 팔아 번 돈을 모두 건축헌금 또는 성구헌금으로 바치셨나 봅니다. 권사님들이 뜰어다 판 갯잎이 변하여 의자가 되고 봉헌대가 되고 세례대가 되었습니다.

갯잎을 가지고 의자를 만드시는 우리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장하십니다. 그 정성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박인환, <<꽃우물에 따뜻한 교회가 있네>> 중에서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마음 든든합니다. 또한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주님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현혹 당하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것들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이 길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기도/송동준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황자순 집사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5월	영접위원	방문성 이인웅 문홍일 정경례 이영란 김진경
	헌금위원	윤석철 백혜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안락한 잠이 제 위로 내려오게 하소서

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무슨 말로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혀도 당신을 묘사할 수 없나이다.  
어떤 생각도 당신의 신비를 설명 못합니다.  
그러하오나, 사람의 모든 말이 당신한테서 나오고  
모든 생각이 당신한테서 돌아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증언하고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우러릅니다.  
모든 바람이 당신께 바치는 기도로 숨쉬고  
흔들리는 나무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조화로운 당신의 설계를 좇아서 움직입니다.  
온 세계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만인이 당신을 열망합니다.  
그러하오나, 당신은 여전히 동떨어져 홀로 계시고  
우리 손에서 멀리 벗어나 계십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이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제가 당신을 부를 수 있을까요?



깨어 일어나 스스로 약속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쁜 짓 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당신께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제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제가 어떻게 당신을 배반했는지  
생각하면 몸이 떨립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다.  
지금 저의 단 하나 소원이  
당신을 섬기는 그것뿐임을.  
오늘 하루 저를 당신께 몸 바친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빛들에서 오는 빛이십니다.  
모든 영적 어둠을 당신은 흠으셨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의 밝음으로 가득 찼고  
당신의 빛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당신은 해와 달을 하늘에 달아 놓으셨고  
밤과 낮으로 하여금 서로 평화로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해와 달을 친구가 되게 하였고  
저로 하여금 만나는 모든 것을 친구로 사귀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에 휴식을 주시고  
낮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일터로 가게 하십니다.  
저로 하여금 낮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  
평안한 양심으로 밤을 맞게 하소서.

이 몸을 잠자리에 눕힐 때  
당신 손가락으로 제 눈꺼풀을 닫아주시고  
당신 손으로 제 머리를 받쳐주시어  
안락한 잠이 제 위로 내려오게 하소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329-389)의 기도문을  
이현주 목사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